

지역기업 '도미노 섯다운'...백척간두 광주·전남경제

기아차 광주공장 25~29일 또 휴업...250여 협력업체 직격탄
금호타이어 노사 휴업 논의·금호고속 순환 휴직 등 악전고투
보해양조 등 살아남기 고육직책...3월 광주 취업자 9000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몰고온 '매서운 경제 후폭풍'에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광주 산업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공장이 또다시 멈추면서 지역 제조업계에 '도미노 섯다운'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창사 후 최대 위기에 몰린 금호고속은 직원 상당수가 휴직에 들어갔고, 보해양조는 해남 보해매실농원에 태양광까지 추진하는 등 지역 기업들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1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2공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또다시 휴업에 들어간다. 수출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와 쏘울을 생산하는 광주2공장은 코로나19로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길이 막히면서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3공장 대형버스 라인에 대해서도 휴업에 들어갔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14일간 부분 휴업을 한 이후 반복된 휴업

을 반복하면서 감산 피해만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호타이어 역시 노사가 이달 말 휴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또 다시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등 국내 3개 공장의 가동을 멈췄고,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2차 휴무를 진행한 바 있다.

광주 제조업 총생산액의 30% 상당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섯다운 불길'이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250여개 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아차가 단 하루 공장가동을 중단해도 협력업체의 피해가 상당한 데다, 자칫 영세 업체들의 '죽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46년 광주·전남을 모태로 출발한 금호고속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악화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곁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버스 이용객이 112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7.9%(103만6000명) 감소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무려 60~70%까지 급감했다.

특히 유·스퀘어 입점 업체의 전체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점 업체의 매출 감소로 임대 수입 역시 크게 줄었다.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에 놓인 금호고속은 임원들의 임금 삭감은 물론, 임직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기업인 보해양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남 보해매실농원 부지 일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값 하락과 소비 부진에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주류 매출에도 타격을 입자 어쩔 수 없는 '고육직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지역 경제를 지탱해야 할 향토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서민들은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지역 취업자는 7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보다 1만3000명이나 줄었고,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비임금근로자는 1만명 증가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만9000명 늘어난 5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완성차 주차장이 스포티지 차량 일부가 주차된 채 한산한 모습이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이 감소하면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최근 휴업을 반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다지겠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임기 후 반부 목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방역 및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감한 정책을 통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결박에 없다"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유흥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거론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



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경제 전 시장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가 지금까지 245조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며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밝혔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과 북에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부실한 평가기준 때문”

전남도가 1조원 규모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종 실패했다. 앞으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공모에서 국토균형발전 조항을 반드시 비중있게 포함시키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수도권과 인접할수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의 밀접성, 연관산업의 형성 등에서 나주가 충북 청주에 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기준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국가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객관적으로 나주가 앞섰음에도 3점차로 최종심사에 탈락하자 전남도는 평가결과와 공개와 재심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주시를 사업 예정지로 선정했다. 앞서 나주와 함께 강원 춘천·경북 포항·충북 청주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었다. 6일 발표평가 결과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충북 청주가 90.54점, 나주가 87.33점, 강원 춘천이 82.59점, 경북 포항이 76.72점을 획득해 후보지별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이후 7일 상위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항목과 기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비중도 미미

한 수준이었다"며 "수도권 접근성과 현 자원의 활용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반영해 평가하고, 부지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서면과 발표평가로 평가를 끝내고, 현장 확인은 하자 유무만을 확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